

영암 옥야리 고분 ‘인골’ 마한시대 혈통 규명 열쇠 풀까

17호분 조사서 옹관묘 등 확인...19호분 인골과 비교해 친족관계 유추 마한문화 규명, 복원·사적 지정 위한 일대 발굴조사...군, 지도위 개최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고분에서 ‘인골’이 출토돼 마한시대 혈연관계 규명에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17호분 발굴조사 결과, 옹관묘 7기와 목관묘 1기, 매납토기 6기, 인골, 유공광구소호, 장신구, 이식, 금속제고리 등이 확인됐다.

옹관묘는 목관묘 옆으로 대부분 남북방향으로 ‘U’자형의 대형옹관을 이용해 합구식으로 횡렬 안치된 형태로 발견됐다. 편평한 석재를 이용해 입구를 막은 후 회백색점질토로 밀봉한 형태의 단층도 2기 확인됐다.

특히 봉분 내에서는 인골이 출토돼 과학적 분석(DNA, 탄소동위원소 측정, 절대연대측정 등)을 통해 고대 마한인의 유전적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된 19호분의 출토 인골과의 비교를 통해 고분 간의 친족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대 마한의 대형고분은 ‘아파트형 고분’이라 해 한 고분(분구)에 석실묘, 석곽묘, 옹관묘, 토광묘 등 여러 개의 매장시설이 다량(多量)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출토되고 있는 유물은 금동관모, 금동신발, 환두대도, 마구류와 유공광구소호와 같은 토기류,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지닌 옥류 등으로 당시 사회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부장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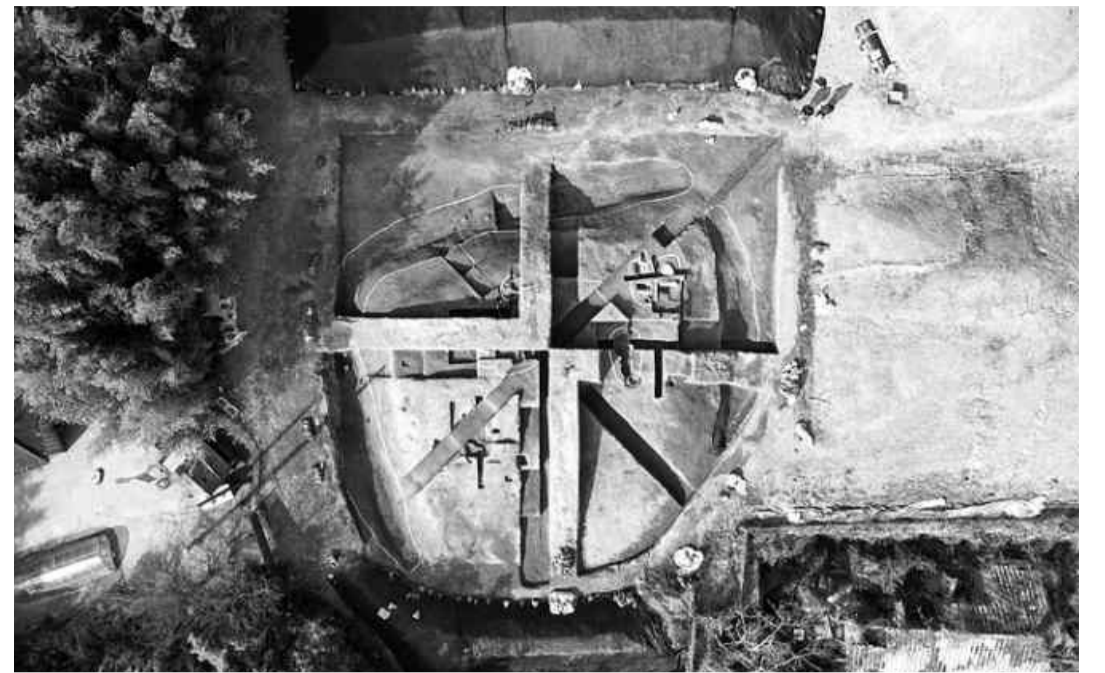
군은 옥야리 고분군을 통한 마한문화 규명과 복원 및 정비, 사적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옥야리 고분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옥야리 17호분 발굴로 얻어진 다양한 자료가 향후 영산강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옥야리 고분군과 영암 일대의 방대형고분 간 비교를 통해 각 고분 간의 선후관계, 혈연관계, 지위관계와 당시의 문화 등을 규명하고, 마한의 중심지로서 그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 옥야리 고분군(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40호)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576-4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4-6세기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마한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다. 옥야리 고분군 주변에는 당시 최고 권력층 내지 귀족층의 무덤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옥야리 방대형고분, 신연리 고분군 등이 분포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7호분 항공사진.

해남 가을배추, 절반도 수확 못하고 산지 폐기

소비 부진 극심 174ha 갈아엎어 군, 28억원 투입 인건비 등 지원

배추 최대 생산지 해남군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수확하지 못한 배추에 대해 산지 폐기에 나섰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통해 산지폐기 면적 174ha를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폐기 작업에 나섰다. 이중 농협 계약분 겨울배추 37ha는 농식품부에서 폐기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출하가 정지된 시장격리 상태다.

또 상품성이 없어 출하가 불가능한 배추 320ha에 대해서는 포전정비 작업비를 지원한다. 배추 밀동 제거와 비닐제거 인건비 등을 ha당 165만원씩 농가에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모두 28억4100만원이다.

김장은 매년 12월15일이면 마무리된다. 예년 같은데 12월 중순이면 가을배추 90% 이상이 수확되는데, 지난해에는 수확량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산지에서는 가을배추가 그대로 밭에 남아 조생용 겨울배추 농사에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김장은 경기악화로 김장을 포기하거나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해



해남 배추 농가가 출하를 못한 배추를 갈아엎고 있다.

<해남군 제공>

남 김치공장의 점입배추 소비도 지난해 70%선에 머물렀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의 경우 전국 1만3617ha중 22.5%, 겨울배추는 3025ha 중 56.5%를 차지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젊은층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김치 소비가 줄다 보니 수확하지 못한 배추가 여는 해보다 늘었다”면서 “배추 판매 다각화를 위해수출이나 도매시장 업무협약을 통한 판로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10주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해양탐사 구축함 만들기 등 이벤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이벤트에서는 독도 등대·해양탐사 구축함·해저탐사 잠수함 만들기 체험, 정답을 찾아라, 해적마술단 네모세모 매직쇼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과학관 1층 ‘바다상상실’에서는 ‘the North Pole, 북극이야기’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다의 신비로움에 호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해양과학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학도에 건립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문 바다과학관으로 지난 2013년 2월 5일 개관 이후 200만여 명이 다녀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실뱀장어 안강만어업 선박.

<신안군>

어획시기 안전사고 예방 조치

신안군이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무허가 불법어업으로부터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신안군은 실뱀장어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경우 마리당 3000~4000원의 높은 가격대를 보인 가운데 이달부터 실뱀장어 어획시기가 도래하면서 불법어업이 성행 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만어업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항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업 목적과 배이름, 선적항 미표기 등의 어선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 어업은 조류가 거센 위치를 선점하여 포획하기 때문에 선박의 주요 항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앞 다퉈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명하거나 응급 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따르고 있다.

또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적, 간접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설치해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만(일명 켄퍼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선박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할 경우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으, 변경, 제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그 동안 실뱀장어안강만 방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 어업 사전 차단 및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마려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도심 야생 멧돼지 출몰 주의

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내일부터 5일간 포획 활동

목포시가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 산 주변 경작자의 농작물 피해예방 조치 및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획단은 8일부터 5일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포를 사용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에서 정하는 종을 말하며,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이 대표적이다.

공개모집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은 5명으로 구성됐으며,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았다.

목포시는 전남도의 협조로 유해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경찰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고 안전한 포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포획 활동시 발생하는 총소리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포획활동 기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입암산 입산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 멧돼지

이어 “멧돼지 출몰지역 경작자는 작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야간 통행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만일 멧돼지를 만나면 뛰거나 소리지르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몸을 숨길 것”을 주문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내일부터 ‘군민과의 대화’

김희수 군수 7개 읍·면 17일까지...군정 보고·의견 청취 등

김희수 진도군수가 ‘2023년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진 행보에 나섰다.

진도군은 8일부터 17일까지 7개 읍면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행진 실천 차원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과의 대화 일정은 진도읍(8일), 군내면(9일), 고군면(13일), 의신면(14일), 임회면(15일), 지산면(16일), 조도면(17일) 등의 순으로 개최된다.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군민과의 대화’는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한 군민 이해와 협력 기반 조성 등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군민과의 대화, 주요 사업장과 취약계층 방문 등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필요성, 시급성, 시행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공감대와 군정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과와 올해 군정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군민이 주민인 살기좋은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친환경 이모작 단지 유기비료 지원

인증면적 1085ha...공시 유기비료 구입비의 50%

해남군이 맥류 등 친환경으로 이모작을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에 유기비료 1만포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기비료 지원사업은 보리, 밀, 귀리, 사료작물 등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유기비료를 공급하게 된다.

대상은 친환경으로 벼 재배 이후 맥류 등 이모작하는 단지로, 이모작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면적은 1085ha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시된 유기NK 함유 비료 값의 50%(자부담 50%)를 지원한다.

이모작 작물 특성상 솟겨름 시비시기인 2월말까지는 농작물에 시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 농가

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유기비료를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 살포를 할 수 없으나 가뭄 등 자연재해시 황백화 현상 등에 따라 농가의 화학비료 살포 위험성이 있어 사전에 유기비료를 공급하게 되었다”며 “유기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농지는 향후 무농약 인증은 물론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친환경인증면적은 2022년 말 기준 4473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